

중국에 대한 인문적 연구의 필요성*

— 중국 매체의 對韓 보도를 중심으로

李賢馥**

<목 차>

1. 서론
2. 사드를 바라보는 시선
 - 2.1 한국의 시선
 - 2.2 사드에 중국의 대한 인식과 주장
3. 인문적 읽기의 필요성
 - 3.1 인문적 읽기는 왜 필요한가
 - 3.2 인문적 읽기의 대상
4. 결론

1. 서론

2016년 7월8일 한미 양국은 한국에 사드(TAHD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배치하기로 발표한다. 중국 당국은 이에 분명한 반대와 비판을 제기하고 중국 민간이 호응하여 한국 상품 불매운동이나 한국 기업에 대한 시위를 벌여 나갔다. 이는 연일 한국 언론에도 오르내리며, 한국인들의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켰다. 한국 정부와 민간은 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이 지켜보아야만 했고, 그저 중국 당국과 중국

* 본 논문은 2017년 6월 10일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주제: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국의 일대일로와 사드)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했다.

**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

민간의 태도가 누그러지기만을 바라는 처지였다. 한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최근 ICBM 발사함으로써 오히려 현 정부에게는 한국 내 사드배치를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추가 배치와 핵잠수함 건조, 미사일 사거리 변화와 같은 군사적 조치의 명분을 주고 있다.

사드는 1차적으로는 군사과학기술과 국방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지역과 국가 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며 관련국의 통상과 연결된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복합적인 문제로서 사드는 한국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역시나 복잡한 후과를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 사드 배치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의 대응 조치이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며 주변국의 긴장을 높이고 있기에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따른다. 미국은 미국대로 국내 외의 정치 전략으로서 활용하는 한편, 이에 대한 비용 분담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과의 통상 현안에 있어서도 활용하려 한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정치외교적 비판과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비공식적인 경제적 제재를 감행하면서, 민간을 부추겨 반한 시위와 행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사건은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것에서 시작해야 할지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 여기에 지금 사드와 북핵을 둘러싼 사건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해결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사드 배치 결정 이전부터 다수의 연구자들이 사드와 관련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박광득이 이야기 하듯이 사드 문제에 대한 연구는 시사적인 주제가 가지는 일반적인 한계, 즉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¹⁾ 사건을 둘러싼 명확한 분석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은 고사하고, 수시로 급변하는 현실을 정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인들은 정책 결정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찾기도 힘든데 연구자들 또한 인맥 이외에 이 문제를 다룰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는 사실 일반인들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각자의

1) 박광득, <제2장 사드배치 문제와 중국에 대한 외교전략 연구>, 《통일전략》 16, 2016.11, pp.42-43.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당국의 공식적인 성명과 언론 매체의 취재 등을 통한 현상적 분석과 이에 대한 대중적인 예측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립과 갈등이 주는 불안감과 불만을 더욱 증폭하고 있다. 즉, 시야가 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고, 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 등의 문제로 인해 복잡한 긴장 국면의 동아시아에서 국가적인 처신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인가를 실감하고 있다. 미국의 주문과 중국의 공세 속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끼인 외교적 형세와 국내 정치를 고려하는 가운데 좁은 선택지를 받아 들고,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전체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야를 놓치고 있다. 이것은 정치권이나 당국자, 학계의 연구자 뿐 아니라 일반인의 의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시사적인 사건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서 시의성이 가장 중요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사에 대해 판단할 때는 그 역사적 연원이나 배경을 살펴 보려는 일은 현실을 도외시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고 너무나 느긋해 속없는 행동이고 되고 만다. 그러나 시사에 끌려가기만 해서는 막연한 추측에 그치며, 대중적인 분석과 대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머무르고 만다. 바쁘게만 보이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필요한 것은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현상적 분석과 함께 이를 전체로 조망할 수 있는 시선을 결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 살피려는 것은 바로 후자에 대한 학문적 제언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드를 바라보는 시선

2.1 한국의 시선

사드 배치를 전후하여 이 시급한 사건에 화답하는 연구들이 나왔다. 주로 정치외교적 시각에서 제출된 연구들은 사드의 역사적 연원과 함께 이를 둘러싼 한중미 3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관련국의 이후의 조치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연구자들은 사드를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서 MD체제와 북핵 문제의 연장선에서 보고 있으며, 변화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판단한 선택지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 결정은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읽힐 수 있다. 초기에는 중국을 중시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사드의 불필요성을 제기하고 독자 개발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에 있어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실망하고 이에 聯美和中에서 대미 편승 외교로 전환하면서 한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본다.

나영주는 한국 내의 사드 배치가 미국의 전 세계적 MD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구실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핵 억지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며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의 공격적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결국 미국의 아시아 균형 정책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의 전력 자산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²⁾ 또

2) 나영주, <한국의 THADD 배치와 중국의 대응전략>, 《민족연구》 67, 2016.9, p.57.

김홍규는 중국은 이에 한국이 기존의 연미화중 기초에서 이탈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대미 편승 외교에 가담한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³⁾ 또한 그는 최근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미국은 한국 내 사드의 배치는 전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계 전략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향후 더 강화해 나갈 의지를 사드 문제를 통해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추후 한반도 문제가 결코 한국이 희망하는 대로 미중의 전략 협력 안에서 다뤄질 개연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 전략적 관계의 정향이 사드 문제를 계기로 협력 위주에서 경쟁 위주로 전환하고 있다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은 한국은 북핵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미온적인 중국에 불신이 높아졌고 반대로 미국의 거듭되는 전략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로부터 한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이 이러한 친미적인 정책으로 전환을 예견했고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한국 연구자들의 시각은 대체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 분노하고 이에 대응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강대국 간의 세계 전략의 충돌에서 설명하고 있다. 박광득은 중국이 한국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드의 한국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는 북핵의 방어보다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무기 체제보다는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어, 미중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⁵⁾고 설명한다. 사드 배치에서 한국이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에게는 한국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이며, 미국의 세계 전략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때 전략적 동반

3) 김홍규,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 《통일정책연구》 25, 2016.6, p.27.

4) 박광득, <제2장 사드배치 문제와 중국에 대한 외교전략 연구>, 《통일전략》 16, 2016.11, p.53.

5) 같은 글, p.53.

자 관계까지 거론하며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결국은 미국의 전략에 쓰이는 장기판의 말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사드 배치는 한국의 독자적인 판단이고, 이미 결정된 국가의 정책으로서 되돌릴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을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 앞에서 바라보았듯이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이들은 이를 중국과 미국의 양국의 전략적 대결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그 사이에 낀 한국은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진 새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새우는 이미 한쪽에 붙어 있기에 시야를 잃어버렸고 선택할 수 있는 탈출구도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와 북핵 문제를 둘러싼 행보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보이는 것으로는 사드 배치를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뒤집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기 보다는 이 난국을 타개하고 지역 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거나, 최소한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애초에 사드 사태를 불러 일으켰던 세력들이 국내외에서 여전히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큰 변화의 폭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미묘한 한국 내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시야를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2.2 사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주장

중국의 연구자들은 사드 문제를 기본적으로 자국의 정치·외교적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한국과는 달리 세계 전략의 차원에서 바라본다. 한국이 양대국 사이에 끼인 존재로 스스로를 정위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자신을 한반도

를 둘러싸고 있는 양 극의 한 쪽의 입장에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 이익은 미국과 서방과의 정치적 대결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있다. 그들은 사드를 둘러싼 정국을 비유적으로 바둑판(博奕)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때 바둑을 두고 있는 이는 각각 중국과 미국이며, 한국은 양국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기사의 입장과 바둑들의 시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인식으로부터 사드를 둘러싼 해결의 방법으로 대개는 대국적 입장의 견지와 이성적 해결을 요구한다. 리친위(李沁妤)⁶⁾는 한국의 사드 배치 및 관련 사건의 원인을 관련국 각각의 입장에서 정리하면서 중국 당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대국의 외교적 각도에서 러시아와의 연합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것은 리친위만의 주장이 아니라 중국 측 학자들의 공통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사드 배치가 미국이 북핵을 빌미로 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진행되는 것으로, 결국 강대국 간의 전략 대결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우선시 되는 해법은 자신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강대국과의 연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이성적인 중미 외교를 언급하는데, 세력이 대등한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이 가져올 파국을 사고했을 때, 당연한 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러시아와 연대하는 것이다. 사드가 향하는 것은 북한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임을 밝히고 미국과 유럽을 한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한 축으로 하여 바둑판의 기사가 누구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변국과의 외교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고, 동북아 안전을 위한 기제의 확립도 요구하고 있다. 사드 문제에 있어 한국이 가지는 입장을 이해하는 가운데 한국이 비록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내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며, 한편으로 한국과 중국이 정치·경제적으

6) 李沁妤, <“薩德”導彈系統部署韓國的地緣政治學解讀>, 《當代韓國》 2016年4期, 2016. 12.25, 참조.

로 밀접한 상황에서 파국이 가져올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대처하자는 주장과도 연계되는데, 한국에 대한 조치는 경제적 조치가 유효한 수단임을 인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 간 교역이 상당하고 FTA가 막 발령된 상황에서 이것이 자칫 중국에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대한 제재에 신중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하기에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이 이에 대해 중국에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를 바라는 온건한 주장도 있다.

이것은 학계의 입장은 중국 내 주류 정치 논리와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려는 것은 우선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과 그 뒤에 숨어 있는 속내이다. 이는 중국의 당과 정 의 주요 문건을 살펴보거나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들의 이념과 정책은 결국 대중에게 교육되고 설파되어 실제 활동을 만들어 내는 바, 언론 매체를 통해 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공산당의 탄생과 발전, 국가 수립의 과정에까지, 정치적 선전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발전시켜 왔던 그들의 역사로부터, 중국의 매체는 명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맞춘 효과적인 선전·선동의 방법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매체 가운데 필자는 분석 대상을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그 이면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통로로서 《人民日報》와 《環球時報》를 택했다. 《人民日報》는 당정의 기관지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요 정책과 함께 그들의 관점이 드러난다. 《環球時報》는 공식적인 매체의 차분함과 다른 격한 어조로 그 이면의 속내까지 보여주고 있다.

《人民日報》는 자국 국민들에게 당과 국가의 정책을 알리고 그들의 주요한 정책과 이념에 따라 대중을 교육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人民日報》의 대부분의 기사는 국내의 사건을 다루는데 기사의 주제 선정과 내용 기술 모두는 치밀한 계산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라 할 수 있다. 한반도와 관련된 기사들 역시 그들의 의도에 따라 선정되고 배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전달되는 기사와 보도의 태도를 살펴

본다면, 해당 신문이 대중에게 무엇을 알리고 교육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人民日報》는 중국을 대표하는 관영 매체로서, 차분한 어조로 국내외의 주요 뉴스를 전달하고 당과 정부의 정책 및 배경이 이론과 사상을 전달하고 교육한다. 《人民日報》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要聞이라 하여 주요 뉴스를 1면에서 6면까지 편성하고 있다. 1면부터 중국의 국가 서열에 따른 그들의 동정을 다루는 기사가 나오는데, 대부분 개인의 동정이지만, 당 및 국가 서열에 따라 배치되기에 각 개인의 행동은 절대 사적이지 않다. 그들 개인의 동정 하나하나가 의식적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가 전략 및 통치와 관련 있는 것으로 그들의 정치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理論, 政治, 經濟, 文化, 社會 등이 있는데, 이론은 정책, 정치, 경제 등과 관련된 이론을, 정치는 당과 관련된 이야기 외에 주로 법률 및 법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⁷⁾ 경제는 주로 중국 내의 경제 동향을 담고 있으며, 문화와 사회 역시 중국 내의 문화 현상과 사회 현상을 담아내고 있다. 이외에 體育, 各地傳真, 黨史特刊, 國防特刊, 文教特刊, 副刊이 있고, 평일 21면부터 23면까지 國際란을 두고 있다.

한국 관련 기사나 평론은 오로지 國際란에서 볼 수 있다. 외국과의 문제가 자국의 정치와 관련되더라도 대부분 국제 문제로 처리하고 있으며, 국제란 이외의 대부분은 자국 내 문제에 한정하고 있다. 대상으로 삼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한국에 대한 기사는 사드 문제, 최순실 사건, 박근혜 탄핵과 구속이 주된 기사였다. 그 외 한진해운 문제나 삼성 등 기업과 경제 문제가 나오지만 한 차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한중 양국의 교류는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사는 거의 보이지 않고 정치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를 둘러싸고 그들의 전략이나 시

7) 정당 및 정치인의 동향과 논쟁 등을 주로 다루는 한국 매체의 정치란과 다른 정치란의 구성과 내용은 중국에서의 정치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가 중국 정치를 바라보는 데 있어 우리에게 익숙한 서구식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중국의 정치와 민주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사드 문제에 대한 기사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들이 집중한 것은 한국의 반 사드 시위이다. 또한 이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는 최대한 자제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이나 주장은 대부분 기사 중간에서 한국 언론사의 논평이나 한국 언론사 기자의 언급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때 인용되는 언론사는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와 같은 보수 언론이 아니라 한겨레와 경향의 기사나 기자의 입장을 전언하고 있다. 전자는 사드 배치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후자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떠올리면 이는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반 사드 투쟁에 대한 기사에서는 거듭해서 ‘한국 민중’이라는 단어를 언급함으로써 사드 반대가 소수의 개인이 아닌 다수의 주장인 듯한 인상을 주려 한다. 시위에 참여한 인원수를 강조하지 않거나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 시위 사진이 참여자 전체를 앵글에 담지 않고 일부 참가자와 동등한 눈높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 등은 이러한 의도를 말해 준다.

이렇게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지만 사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鐘聲이라는 칼럼을 통해 필요한 경우 자신들의 의견을 게재하고 있다. 2017년 4월30일자 종성은 한반도 관련국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면서 1)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피해야 한다, 2)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 당사자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3) 2)번과 연계해서, 중국은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다, 4) 중국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피해를 본다, 5) 미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이는 중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반 기사를 통해서는 한국 내 반 사드 운동을 관련된 기사를 많이 다루어 자국민들에게 한국 내 반대의 분위기가 보편적인 듯이 보이게 하고 자국 내 사드 반대가 도덕적으로도 정당함을 보이려 하는데 치중한다. 반면에 그 속내는 칼럼을 통해서 제기하는 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드가 당사자가 아닌 중국을 끌어들이고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사드 및 한반도 핵

문제에 있어 중국무관론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는데, 《環球時報》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⁸⁾

《環球時報》는 《人民日報》와 달리 대상에 대해 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어조를 취한다. 헤드라인은 상대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핵심 사실의 전달보다는 가치 판단을 내리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는 《環球時報》의 대상이 《人民日報》와 다르기 때문이다. 《人民日報》가 자국 국민에 한정되어 있다면 《環球時報》는 자국 국민과 더불어 외국을 겨냥하고 있다. 자국 국민에 대해서는 선동과 교육을, 외국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입장의 제시와 경고를 목표로 하는 듯이 보인다.

《環球時報》 역시 한국 관련 기사의 대부분은 사드와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신들의 취하고 있는 전략이나 정책의 바탕을 더 명확하게 전개하고 있다. 기본적인 논조에서는 《人民日報》와 같이 사드와 북핵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과 한국이 한 축을, 그리고 다른 축은 북한이며 중국은 그 당사자가 아니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독립국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들의 역사적 연원에서 북한을 여전히 주요한 동맹 세력임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범위 내에 묶어 두려 하면서도 북한을 독립국이라고 천명하고 미국과 함께 동북아 평화에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핵심함을 둘러싼 한반도의 대결 국면에서 중국무관론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環球時報》에 기고하는 논자들은 미국과 한국

8) 《人民日報》에서 한국 관련 기사의 절반이 사드였다면 그 나머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 및 재판과 관련된 기사이다. 관련 기사가 사드와 다른 점은 사건의 전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촛불 집회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그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은 하나도 보이지 않으며 이에 대한 평론은 전무하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적으로 자국의 국민들에게 중국 내 정치와 관련하여 좋지 않은 심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권력 실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때에 따라 등장하기도 하는 중국에서 親信干政이라 지칭하는 비선 실세의 권력과 정치에의 참여 간섭에 대한 평론적 언급은 자칫 자국민들을 중국 자체의 정치 문화, 제도, 현상 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은 살아 있던 권력이 헌법적 틀 내에서 도태되는 사건이기에 이것이 자칫 중국 자체의 정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박근혜 탄핵과 구속 관련 기사는 최순실 수사를 실은 기사(3단 이상)와 비교했을 때 분량이 축소되어 있다(1단에 한 개 단락으로 되어 있기도 하여, 일반 단신으로 처리되어 있다).

역시 해당 문제의 한축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들은 북핵 문제는 미국이 약속을 지켰으면 해결되는 문제이며, 오늘날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미국이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 의심한다. 그들은 미국이 동북아를 위기 상황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아울러 이것이 중국을 끌어 낼 수 있는 지렛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人民日報》와 《環球時報》 공히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해 더 넓고 정확한 군사적 시야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한일군사협정 문제도 중국은 이것이 한국에 군사정보 측면에서 상당한 이익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방향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틀에서 사드는 군사적 위협을 넘어서 미국이 중국을 세계 질서에 편입하고 통제하려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드나 한미일 동맹의 차원에서 나오는 여러 조치들에 대한 태도는 세계 전략의 충돌로 인식하고 있다.⁹⁾

즉, 그들은 미국이 북핵과 사드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속으로 중국을 끌어들이고 제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중의 세계 전략의 대결 속에서 피해를 보는 한국이라는 한국 측 연구자들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두 중국의 매체는 사드에 대해서는 사실의 전달과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에서 머문다. 한국, 미

9) 한편 특이한 것은 《人民日報》에서는 거의 인용하지 않는 조선, 중앙, 동아 등의 한국 내 보수적인 신문 매체가 언급된다는 것이다. 이는 《人民日報》와의 전략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環球時報》는 공격적인 어투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한국과 같은 상대편 국가와 국민에게는 상당히 모욕적으로 보일 수 있고, 적대감을 자국할 수 있음에도 그들은 이러한 어투의 사용을 자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人民日報》의 보도 태도와 마찬가지로 《環球時報》가 대외적인 직접적인 언급이 수단이면서도, 근처에는 결국은 자국민을 선동하려고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人民日報》가 한국 내의 반대 분위기를 진함으로써 자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도덕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에, 《環球時報》는 그들의 반대편의 입장을 진함으로써 그를 통해 자국민의 분노를 더욱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적들의 부도덕성과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국, 북한 등의 주장은 그들의 반박의 대상으로 적시될 뿐이다. 이에 대한 차분한 분석 기사나 짧은 시간이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역사적 연원 등을 알리는 기사는 없다. 사드가 무엇이고 국제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났고 지금의 문제가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 이외에 그들의 관심은 자국 내의 정치, 경제 상황과 그들의 세계 전략으로서 일대일로에 치우쳐 있다.

정리해 본다면 한국은 스스로를 피해자의 입장에 놓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실을 대고 두 강대국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 진의를 이해하려고 하며, 이로부터 대중적인 방법을 내는 데 치중한다. 그러면서 시사적이고 대중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한편으로 시야가 가려 있는 답답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스스로를 대국으로 인식하면서 강대국 간의 전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자기 입장과 자신의 요구를 제시하고 그 외에는 자신의 관심사에만 시선을 돌리고 있다. 결국 각자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어떠한 시선을 가지게 되면, 중국과 한국은 각각 이러한 위치와 시선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와 그에 따른 시선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방법과 전략을 내 와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치와 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그것은 심지어 우리의 시선이 아닌 다른 강자의 시선을 따른 것이기도 한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더욱 넓히기 위해서는 이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문적 읽기의 필요성

3.1 인문적 읽기는 왜 필요한가

중국은 명확한 자기 계획에 의해 자국의 발전을 사고함과 아울러 이를 세계

질서의 차원에서 재편하려고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일대일로 대표되는 자신들의 전략을 실현하는 데 있어 북핵과 사드가 방해물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에게 북핵 문제는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중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핵을 빌미로 미국이 꺼내든 창끝은 실제로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중국책임론'에 대해 중국의 '중국무관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반면 북핵 문제에 기본적으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고,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하자 미국의 전략을 수용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盟美牽中의 정책으로 나아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적 선택을 초래한 것은 현실 상황만이 아니다. 그 이면에서 우리가 특정한 시선과 사고를 내면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약 한국인에게 중국과 미국을 지금 이 순간 지지할 국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6, 70% 이상은 미국을 택할 것이다. 이 선택의 이유는 한미동맹이라는 외교적 실제일 수 있고,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일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더 말한다면 은연중에 미국과 서구 세계를 중국보다 우위에 두는 의식이 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한국인들은 중국보다는 미국이 세련되었다고 생각하며, 중국은 낡았고, 미국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다시 무엇인가 중국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더 선한 존재라는 생각으로도 이어진다. 세계의 경찰국가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한국인은 미국을 꼽으며 중국은 아직 그러한 지위에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서구가 만들어 낸 현 세계에서 여전히 중국은 낙후된 존재이다.¹⁰⁾

그런데 이는 맹미견중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연미화중이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중국을 설정하는 것도 미국 내지 서구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중국은 서구가 만들어 놓은 역사적 세계의 구성원의 하나

10) 중국에서도 이러한 한국인의 시선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은 이것을 한국의 오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李宗勳은 한국 정부의 전략 결정자들과 보수당 의원 대부분이 미국 박사들이거나 미국 배경을 가진 이들로써 친미적인 경향이 다분하며, 이것은 중국을 여전히 냉전시기의 중국으로 보거나 미국을 유일한 한국의 구세주로 보는 오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李宗勳, <薩德入韓經緯與中韓關係>, 《延邊大學學報》 2016年5期, 2016.9.20, 참조.

일 뿐이다. 이 세계 속에서 중국과 미국은 대등한 존재이면서도 차이가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의 연구자들의 주장이나 중국의 언론에서 비치는 그들의 입장도 동아시아에서의 자금의 상황은 동등한 중량을 가진 두 강대국의 충돌만을 이야기할 뿐, 이것이 두 세계의 충돌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아시아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중국을 현 세계의 일원으로 바라보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중국은 이 세계에서 일개 국가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세계를 보고 있지 않으며 그것을 넘어선 세계관의 차원에서 새로운 문명적, 문화적 세계를 상상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사드 관련 보도의 매체 보도에서의 위치나, 이에 대한 그들의 비평을 살펴보았을 때, 그 행간에 드러나는 것은 새로운 문명적 세계의 구축이다.

사드 문제에 있어 중국은 분명 자신을 전쟁터로 끌어내려는 미국과 그에 부합하는 듯한 한국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를 설명하기 위해 사드의 레이더와 같은 군사적 전략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분명 위협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위성으로 상대방을 제 손바닥 보듯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 전쟁 상황에 국한된 레이더의 위협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중국이 분노하는 진정한 이유는 중국이 자신의 세계 상상을 실현하는 것이 방해 받고 위협받는 데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자국의 경제와 세계 전략으로서 一帶一路에 있다. 이는 《人民日報》나 《環球時報》에서 실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사는 '일대일로'라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대일로는 단순히 일국의 경제발전 정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역사적 연원을 바탕으로 삼아 중국 중심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중국은 자신의 세계 상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여기서 북핵과 사드는 그들의 구도에서는 논외의 혹은 부수적인 사건이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의 구상을 파열시키려는 미국 및 서구의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다.

중국의 어투와 주장에서도 은연중 그들의 속뜻이 드러난다. 《人民日報》와 《環球時報》에서 우리는 ‘대국’이라는 용어를 여러 차례 만나게 된다. 우리에게 그리 낯선 용어는 아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과 미국을 대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근대 세계 내의 대국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국’은 실제로는 중의적이다. 현 세계에서 의 강대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관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동 세계에서의 대국을 떠올리게 한다. 청말 강여우웨이(康有爲)는 중국을 압박했던 세계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의 天下觀, 大同世界의 이상을 끌어들었다. 그는 당시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이 이러한 세계 속의 일원으로 존재를 지속하는 한편으로 서구가 만든 세계의 미래를 대통일의 세계로, 그리고 중국이 이 대통일의 대동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대국으로서 역할을 할 것을 바랐다. 중국은 서구가 만든 근대 세계에 들어와 그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듯하지만, 그들의 고유한 천하관을 유지하고 이에 맞추어 마주하게 된 세계를 구상했던 것이다. 여기서 강여우웨이가 언급한 대국의 국가는 근대 민족국가가 아니라 그들의 전통적 세계관인 천하관 내에 존재하는 국가일 수 있다. 즉, 대동은 서구의 근대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중국의 천하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말하는 ‘대국’을 사고할 때는 이를 두 세계에서의 ‘국가’라는 중의적인 의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언급하는 대국으로서의 책임은(아직까지는) 현 세계 질서에서의 대국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구상하고 있는 문명적 세계에서의 ‘대국’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 서구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 존재하면서 자연 그 시선을 내면화하고 중국에 대해 천하가 붕괴하고 중국은 이 세계 내로 편입되었다는 시각을 유지해 왔다. 중국이 서구와의 대결에서 패하고, 이 세계에서는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낡은 존재로 전락하여 지난 세기 중국은 이 세계에서의 생존의 도모에 급급한 것으로 인식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은 과거의 세계관을 버리고 오직 근대를 도모해 온 것이다. 이 근대는 서구적 근대이며, 현 중국

에서 사회주의는 그러한 근대를 추구하는 중국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중국이 이 세계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일국의 발전의 차원을 넘어 자신의 세계를 상상하고 구축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는 다케우치 요시미(竹內好)의 루쉰(魯迅) 읽기를 통해 중국의 근대가 이미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으로 회귀하려는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으며, 이를 더욱 구체화해 일본 내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중국을 탐색했고 이를 발전시켜 방법으로서 중국을 고민했다. 그의 주장은 중국을 전근대와 근대로 나누는 서구적 시각에서 벗어나 그 내부의 연속성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봉건'도 전근대와 대비되어 낡은 제도나 역사적 단계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치와 평등을 이야기하는 가치이자 제도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중국의 근대는 기존의 근대관에 따라 낡은 것으로 폐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洋務에서 비롯되어 變法, 革命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그 안에서 그들이 예부터 가지고 있었던 세계와 그 세계의 가치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었다. 그들의 근대는 분명 세계의 틀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그들의 근대 내에 자리한 회귀와 부활의 의식은 현 세계의 질서에 맞지 않으며, 늘 다시금 자신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다시 창조하려는 욕망 내에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다.¹¹⁾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한 중국은 유가적 사상과 체제와는 결별하며 근대 세계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듯했고, 改革開放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본주의화와 세계 경제 체제로 편입되어 왔다. 그러나 G2로 지칭되며 현 세계에서 유일한 미국의 대항마가 되어 있는 그들은 계속해서 '중화'를 강조하며 내적으로 자국민을 결집시키고 외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피력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현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중국을 발전시키는 것에서 벗어남과 어울려 서구가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에서도 벗어나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고 것이다.

11) 溝口雄三 著, 서광덕·최정섭 譯, 《방법으로서 중국》(부산: 산지니, 2016).

다케우치 요시미나 미조구치 유조가 이야기 했듯이 중국은 자신의 세계관과 자신의 체제, 자신의 방법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역사 속에서 구축해 온 세계와 방법을 현실의 변화에 적응시키며 발전시켜 온 것이며 나아가 그들의 세계관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근대 서구의 체제인 '사회주의'가 중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것을 택했으며, 이는 그것이 그들의 문화적 관성과 맞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의 체제는 문화적이다. 그 씨앗을 보존하고 결국은 터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의 미래와 이와 관련된 우리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씨앗, 곧 문화적 축적물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사적 사건들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며, 그들의 문화적, 역사적 구상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 인문적 배경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때 실제적인 미래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가 간 전략의 충돌이 아니라 세계관이라는 인문적 각도에서 바라보는 차이는 무엇인가? 전자는 서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우월한 미국과 낙후된 중국이라는 이미지는 여전하며, 이 구도에서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재편될 것이라는 예측이나 기대를 하게 되고 결국 특정한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살피는 것은 고정된 시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을 관점으로 취하는 것이다. 어느 일방의 승리가 아니라 그것이 현실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조정되면서 만들어지는 역사를 살피는 것이다. 중국의 세계관의 구성은 그대로 실현될 수 없다. 세계관은 실체로서 미국 중심의 세계와 중국 중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으로 존재하며 이것이 현재의 두 국가의 정책과 전략으로 드러나게 된다. 확실한 것은 100여 년의 서구의 역사적 승리가 말 그대로 역사적 승리라는 것이다. 그 유동성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가능성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며, 우리의 선택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3.2 인문적 읽기의 대상

그렇다면 인문적 읽기의 대상은 무엇을 삼아야 하는가?

첫째는 그들의 과거 세계관을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미 조구치 유조는 중국의 근대가 대동의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대동은 일국 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외적으로는 세계적 질서를 의미한다. 중국은 그 바탕에 '평등'이 놓여 있음을 밝히며 자신들이 구축하려는 세계가 서구가 만들어 놓은 패권적 세계와는 다름을 보이고자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가 중국만의 부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질서에 포함되는 각국의 독립과 동등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지극히 중국 중심적인 해석과 생각으로 이것을 역시 내면화할 것을 강요받는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으며, 이를 실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마르크스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제국주의의 피해자였으며, 전후 제3세계를 이끌었던 리더였다는 그들의 역사적 경험, 역내 국가들에 대한 중국 주도의 지원 등을 결합함으로써 이를 현실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이 100여 년의 치욕을 끝내고 점차 중심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는 현재 중국의 세계 구상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그들의 세계에 대한 상상 내에 한국 역시 자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타국을 자신들의 전략 속에 놓아두고 사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장기판에 놓여 있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 가운데 처한 우리는 그 장기판의 형세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때 그 한 축인 중국이 그리고 있는 형세를 우리는 그들의 전통적 세계관에 대한 재검토에서 시작해 보아야 한다. 그들이 버리지 않고 있던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근대와 전근대, 발전과 퇴보의 가치적 판단과 시선에서가 아니라 충돌하는 두 세계를 파악해야 하는 우리의 필요와 시선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과거의 그들의 역사적 경험이 어떻게 사상과 문화로 전화되었

으며, 이것이 다시 오늘날의 형세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들의 지난 역사적 전통을 지나간 전통으로서만 사고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려 가는 세계 질서의 틀이라는 측면에서 연결시켜 보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좌익을 다시금 연구해야 한다. 류강(劉康)은 마르크스주의와 미학¹²⁾에서 중국의 좌익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사회주의 내지 마오쩌둥(毛澤東)사상이 서구에 대한 대안적 근대성이라고 지칭했었다. 중국적 마르크스주의는 서구 자본주의적 근대에 대한 반대이자 그 틀 내에서 저항했던 서구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논의했던 흐름에서 본다면 이 대안의 의미도 다르게 읽히게 된다. 이는 과거에는 어떠한지 몰라도 현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근대 세계 내에서의 대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천하, 그들의 전통적 문명 세계의 발현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해 보아야 한다. 물론 이 경우 그들의 문명 세계로서의 천하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작게는 미국, 넓게는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와의 충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문명 세계로서의 천하의 발현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근대 세계의 이념 및 체제와 연결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경제에서 자본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 상 공산당의 일당 독재와 경제 상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모순적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중국의 정치까지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 역의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상기한 《人民日報》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와 민주는 다수결에 입각한 형식적 민주 정치 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가치에 의한 통치이다. 그리고 그것은 공산당의 일당독재 체제만이 아니라 중국의 오랜 정치 문화의 관행이 결합된 것일 수 있다. 민주는 정치에 인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민주는 '인민'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이냐, 혹은 사회

12) Liu Kang, *Aesthetics and Marxism*, Durham N. C.: Duke University Press, 2000.

와 국가를 유지하는 데 무엇이 옳은 것이냐 하는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이것은 '王道政治'와 같은 중국의 전통적인 정치관 및 체제와 관련 있는 동시에, 역사적 목적의식에 부합하는가를 끊임없이 묻는 사회주의의 그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들의 정치 체제와 사회는 그들의 과거의 문화적 전통과 현대에 이르러 그들이 형성해 온 정치 문화의 새로운 전통으로부터도 결코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시장질서의 힘이 그들의 정치 질서까지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서구적 근대의 대안으로서 이념과 그에 따른 정치 체제와 문화가 오히려 자본과 시장을 통제하고 나아가 그들이 재편할 수 있다는 의도와 자신감을 그들은 갖춰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국은 일대일로가 전쟁을 위한 자본이 아닌 평화를 위한 자본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서구의 정치가 통제하지 못하는 자본을 통제할 것이며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은 시장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자신들의 방법과 구도로, 그들이 구축하는 세계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이를 외국자본을 투자를 이끌어 내려는 시도로, 즉 서구 세계, 서구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패권적 정책으로 볼 수 있고, 중국적인 경제 사회 체제와 그 이념적 틀에서 이끌어 나가려는 그들 자체의 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요는 서구의 정치학이나 경제학의 시선으로 중국의 정치와 경제를 바라보아서는 중국의 세계 상상을 읽어 내지 못할 수 있다. 세계시장에 편입함으로써 이것이 그들의 정치 질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환상일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은 안정된 정치 질서 속에서 그들의 정치와 경제의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8,90년대 한국의 중국 연구는 한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할 대안의 하나로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의 추진, 세계 경제 체제로의 편입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주의, 좌익 등의 말은 시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다시

넓고 낙후한 전근대의 문화적 전통과 결합되었다. 즉, 중국의 전통과 좌익은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는 낡은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대신 사회주의 붕괴 후 승리를 구가하는 듯했던 서구적 기준, 그의 정치학과 경제학 등이 중국을 이해하고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그들의 전통적 세계와 가치관의 자기 발현이 현 세계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결합하고 있는 지점은 엄연히 사회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좌익적 사고와 세계관과 이와 결합된 중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이다.

서구 중심의 시장에 맞서 일대일로를 통해 옛 문명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나름의 질서를 구현하려고 이를 통해 기존의 서구 세계와 대결하려고 하며, 역으로 자본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그들의 의도에 따라 통제하려고 하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낡은 것으로 규정되어 버린 중국의 전통적 세계관과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중국 좌익에 대한 종합적이고 인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했을 때, 현상을 넘어 이들이 꿈꾸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우리는 두 세계의 충돌의 과정에서 나름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4. 결 론

현재 진행형인 사드와 북핵 문제 속에서 우리는 임시적인 미봉책에 대한 유혹을 지나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를 위해 급변하는 사건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 근원적인 것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탐색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우리에게 내면화된 시야에 대한 문제를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서구 위주의 사고가 아닌 중국의 전략, 중국의 세계관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국적인 상황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전통적 세계관과 문화적 배경을 살피는 것이 한 축이 되어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들의 현대를 만들어 낸 사회주의를 다시 탐색하고 재구성해 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그 구체적인 탐색의 방법과 내용은 새로운 방법론과 연구를 지향하는 연구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 參考文獻 >

《人民日報》

《環球時報》

康有爲 著, 이성애 譯, 《大同書》, 서울: 민음사, 1991.

溝口雄三 著, 서광덕·최정섭 譯, 《방법으로서 중국》, 부산: 산지니, 2016.

Liu Kang, *Aesthetics and Marxism*, Durham N. C.: Duke University Press, 2000.

李沁好, <“薩德”導彈系統部署韓國的地緣政治學解讀>, 《當代韓國》 2016年4期, 2016.

陳向陽, <“薩德”入韓對東北亞地區的戰略影響>, 《現代國際關係》 2017年4期, 2017.

孫茹, <理解中國對“薩德”問題的反應>, 《現代國際關係》 2017年4期, 2017.

劉天聰, <“薩德”部署的韓國因素>, 《現代國際關係》 2017年4期, 2017.

李軍, <朝鮮對“薩德”的認知與應對>, 《現代國際關係》 2017年4期, 2017.

蔡美花, <“薩德”入韓與中國的半島策略>, 《延邊大學學報》 2016年5期, 2016.

金強一, <韓國部署“薩德”必將陷入新的困境>, 《延邊大學學報》 2016年5期, 2016.

張玉山, <“薩德”也是政治問題, 不能完全用經濟手段應對>, 《延邊大學學報》 2016年5期, 2016.

王曉波, <理想應對朝鮮半島的“矛”與“盾”的戰略“博弈”>, 《延邊大學學報》 2016年5期, 2016.

時永明, <薩德導彈問題與東亞戰略格局>, 《延邊大學學報》 2016年5期, 2016.

李宗勳, <薩德入韓經緯與中韓關係>, 《延邊大學學報》 2016年5期, 2016.

王俊生, <認清在韓部署“薩德”的危險, 應採取正確反制手段>, 《延邊大學學報》 2016年5期, 2016.

張東明, <中國做好自身定位, 再去思考應對“薩德”入韓問題>, 《延邊大學學報》 2016年5期, 2016.9.20.

張壽, <中國要強化對朝鮮的影響力>, 《延邊大學學報》 2016年5期, 2016.

- 박근재, <사드(TAHD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23, 2016.
- 김홍규,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 《통일정책연구》 25, 2016.
- 박헌욱, <김정은 체제의 핵미사일 전략과 한반도 사드 배치 유용성>, 《군사논단》 87, 2016.
- 정육식·이용승, <사드와 한국의 국익>, 《민족연구》 67, 2016.
- 나영주, <한국의 THADD 배치와 중국의 대응전략>, 《민족연구》 67, 2016.
- 김재한, <제1장 통일·안보 정책의 정치화와 사드 배치 논란>, 《통일전략》 16, 2016.
- 박광득, <제2장 사드배치 문제와 중국에 대한 외교전략 연구>, 《통일전략》 16, 2016.
- 박휘락,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DD) 논란이 갖는 의미-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적용>, 《국제관계연구》 21, 2016.
- 박휘락, <제3장 사드배치 문제의 군사전략적 함의>, 《통일전략》 16, 2016.
- 최영미·곽태환,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과 평가기준: 전문가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2권3호, 2016.

< Abstract >

The Need of Humanistic Study on China

Lee, Hyun-bok

On 8th July, 2016,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deploy THADD to the South Korea. This decision created the tension between Korea and China for both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What makes these situation worse and makes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 difficult is the fact that we, Koreans are blinded by internalized idea from the West, re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The modern world was constructed by the West, and we have been taking

China as just one stated of this modern world. In this idea, we take it for granted that China is inferior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so we look at matters from a biased point of view and make decisions biasedly. But now China have entered the stage to reconstruct the World under their own traditional view of world, that is the view of Tianxia(天下). Under this circumstance, we have to study China in the humanistic way in order to understand matters precisely, to make our own view and to resolve problems autonomously. This study includes two fields, one is Chinese traditional view of world and their cultural tradition, the other is socialism in China, which have made their modernized tradition.

Key words: THADD, the view of world, Tianxia, humanistic study, internalization, culture, tradition, socialism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07. 31.	2017. 08. 27.	2017. 09. 11.	2017. 09. 14.	2017. 09. 30.

